

2020년(연간·4분기) 경남지역 고용동향

2021. 2

창원상공회의소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한 경남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 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2.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분석
 -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로써 고용정책 수립,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신속하고 세분화된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함.
 - 고용보험DB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고용보험통계: 승인번호 제327002호)
 - 피보험자의 포괄범위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상용', '계약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인 자,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고용보험DB 이용 시 유의사항
 - 분기 중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
 - 고용보험DB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 포괄하지 않은 부분(자영업자, 미가입자,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
 -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대체로 높아 전체 동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3. 조사기간

2021년 2월 8일 ~ 2월 16일

4. 조사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규모별, 업종별)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규모별, 업종별)
- 고용보험 상실자의 재취득 경로(지역별, 업종별)

II. 요약 및 시사점

-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근로자 수가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추세적 감소를 보이고 있음. 반면, 50·60대 중장년층 근로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50대가 30대 근로자 수를 상회한데 이어 올해 그 격차도 커졌음. 경남 노동시장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속도조절과 지역 내 청년 인적자본의 손상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2020년 4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비자발적 퇴직 증가로 전체 퇴직자수와 실업급여 지급액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음. 더불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액도 큰 증가폭을 보이는 등 2020년 경남의 고용시장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및 생산위축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됨. 고무적인 부분은 2020년 연간 경력직 근로자 유출입에 있어, 경남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순유입을 기록했음. 전체 근로자 순유입 규모는 1,575명으로 소규모였으나, 제조업 근로자는 1만 5,457명이 순유입했음.
- 2020년 말 기준 경남지역 근로자 수(고용보험 가입) 78만 1,408명(+0.5%)
 - 전체 근로자 수 증가를 이끈 서비스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5.9%), ‘전문, 과학·기술’(+6.6%) 부문에서 근로자 수 높은 증가폭
 - 제조업은 ‘전기장비’(+16.9%), ‘전자부품’(+2.0%)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근로자 수 감소를 보이며, 전년 대비 2.4% 감소한 32만 6,844명을 기록
- 청년층(20·30대) 감소, 중장년층(50·60대)·여성 증가 추세 지속
 - 20·30대의 감소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20·30대 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각각 0.1%, 4.7%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 20·30대는 각각 5.8%, 6.2%로 큰 폭으로 감소
 - 여성 근로자 수의 추세적 증가로 경남의 남녀 근로자 성비도 2018년말 62.1대 37.9에서 2020년말 60.4대 39.6을 기록
- 2020년 4분기(누적) 취업자 수 -1.8% 감소, 퇴직자 수 11.1% 증가
 - 퇴직사유별로, ‘회사불황에 인한 인원감축’(+12.6%), ‘폐업·도산’(+21.6%) 등 비자발적 퇴사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실업급여 지급건수와 지급액, 각각 43.7%, 57.8% 증가
 -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인원과 지급액, 각각 252.2%, 197.7% 급증
- 2020년 연간 근로자 1,575명 순유입(유입 35만 2,453명, 유출 35만 878명)
제조업 근로자 순유입 1만 5,457명,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순유입 기록
 - 순유입... 경기 +2,639명, 충남 686명, 전남 599명, 대전 577명 등
(제조업) (+2,375명) (+456명) (+549명) (+426명)
 - 순유출... 서울 -3,390명, 울산 -537명, 부산 -152명, 대구 -58명 등
(제조업) (+5,379명) (-162명) (+4,368명) (+381명)

Ⅲ. 경상남도 고용 동향

1. 경상남도 근로자 및 사업장 수 현황

1) 경상남도 규모별 근로자 및 사업장 수 현황

- 2020년 4분기 말(연말) 기준 경남지역 고용보험¹⁾에 가입한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일용직 근로자 제외) 수는 78만 1,408명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66명(+0.5%) 증가한 수임.
규모별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 22만 9,526명(+2.6%),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30만 1,171명(+0.5%), '300인 이상' 15만 2,105명(+2.1%)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9만 8,606명으로 6.6% 감소했음.
- 경남 사업장 수(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도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14만 7,595개를 기록했음. 규모별로 '10인 미만 사업장' 수가 13만 245개로 1.7% 늘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 수도 242개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음. 반면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1만 6,230개(-0.1%),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878개(-2.3%)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모습임.
-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중간 수준의 규모를 가진 '1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업종별(대분류) 근로자 및 사업장 수 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말 경남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 근로자 수는 2.4% 감소한 32만 6,844명임.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2.7% 증가한 39만 9,977명을 기록했음.

1) 고용보험 적용제의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 10조 및 령 제2조, 제3조)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근로자(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중 보험가입신청자,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제외)

- 제조업 근로자 수는 감소했지만, 사업장 수는 3만 1,487개로 2.5% 증가했음. 근로자 수 감소와 사업장 수 증가로 사업장 당 근로자 수는 10.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명 줄었음. 제조업 사업장 당 근로자 수가 추세적 감소를 보이고 있어, 경남 제조업의 소규모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경남 규모별 근로자 및 사업장 수

(단위 : 명)

		'18 4Q	'19 4Q	'20			
				1Q	2Q	3Q	4Q
경상남도	근로자 수	757,117 (2.9%)	777,842 (2.7%)	773,770 (1.3%)	776,976 (1.2%)	788,622 (2.0%)	781,408 (0.5%)
	사업장 수	147,459 (4.2%)	145,470 (-1.3%)	140,554 (3.5%)	142,021 (5.0%)	143,000 (7.7%)	147,595 (1.5%)
	평균 근로자 수	5.1	5.3	5.5	5.5	5.5	5.3
10인 미만	근로자 수	213,922 (4.4%)	223,678 (4.6%)	216,714 (3.9%)	219,103 (2.5%)	224,664 (2.9%)	229,526 (2.6%)
	사업장 수	128,045 (4.8%)	128,081 (0.0%)	123,396 (4.3%)	124,811 (5.7%)	125,713 (8.6%)	130,245 (1.7%)
	평균 근로자 수	1.7	1.7	1.8	1.8	1.8	1.8
10인 이상 100인 미만	근로자 수	298,553 (2.5%)	299,699 (0.4%)	303,062 (-0.5%)	303,385 (0.8%)	303,060 (0.9%)	301,171 (0.5%)
	사업장 수	18,100 (0.5%)	16,252 (-10.2%)	16,022 (-1.7%)	16,075 (-0.2%)	16,163 (2.0%)	16,230 (-0.1%)
	평균 근로자 수	16.5	18.4	18.9	18.9	18.8	18.6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 수	109,891 (2.0%)	105,586 (-3.9%)	103,300 (-6.2%)	101,680 (-3.8%)	100,636 (-4.5%)	98,606 (-6.6%)
	사업장 수	1,049 (-5.5%)	899 (-14.3%)	888 (-4.9%)	889 (-1.4%)	885 (0.0%)	878 (-2.3%)
	평균 근로자 수	104.8	117.4	116.3	114.4	113.7	112.3
300인 이상	근로자 수	134,751 (2.2%)	148,909 (10.5%)	150,694 (7.2%)	152,808 (3.6%)	160,262 (7.4%)	152,105 (2.1%)
	사업장 수	265 (-8.0%)	238 (-10.2%)	248 (5.5%)	246 (1.2%)	239 (0.0%)	242 (1.7%)
	평균 근로자 수	508.5	625.7	607.6	621.2	670.6	628.5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분기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서비스업 근로자 수 증가와 더불어 사업장 수도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7만 9,727개를 기록했다. 근로자 수와 사업장 수 모두 증가하며 사업장 당 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1명 줄어든 5.0명을 나타냈다.

경상남도 업종별 근로자 및 사업장 수 동향

(단위 : 명)

		'18 4Q	'19 4Q	'20			
				1Q	2Q	3Q	4Q
경상남도	근로자 수	757,117 (2.9%)	777,842 (2.7%)	773,770 (1.3%)	776,976 (1.2%)	788,622 (2.0%)	781,408 (0.5%)
	사업장 수	147,459 (4.2%)	145,470 (-1.3%)	140,554 (3.5%)	142,021 (5.0%)	143,000 (7.7%)	147,595 (1.5%)
	평균 근로자 수	5.1	5.3	5.5	5.5	5.5	5.3
제조업	근로자 수	334,857 (-1.5%)	335,012 (0.0%)	335,330 (0.1%)	329,150 (-2.0%)	326,413 (-2.4%)	326,844 (-2.4%)
	사업장 수	30,346 (4.5%)	30,727 (1.3%)	31,127 (2.5%)	31,238 (2.6%)	31,541 (3.2%)	31,487 (2.5%)
	평균 근로자 수	11.0	10.9	10.8	10.5	10.3	10.4
건설업	근로자 수	37,139 (-0.7%)	37,269 (0.4%)	37,277 (0.8%)	37,645 (2.0%)	37,969 (2.7%)	38,340 (2.9%)
	사업장 수	41,315 (0.4%)	35,870 (-13.2%)	29,104 (0.9%)	29,775 (9.2%)	28,811 (20.0%)	32,964 (-8.1%)
	평균 근로자 수	0.9	1.0	1.3	1.3	1.3	1.2
서비스업	근로자 수	369,549 (7.7%)	389,384 (5.4%)	385,094 (2.4%)	395,278 (3.9%)	408,448 (5.8%)	399,977 (2.7%)
	사업장 수	72,883 (6.1%)	75,674 (3.8%)	77,080 (4.7%)	77,702 (4.1%)	79,302 (5.6%)	79,727 (5.4%)
	평균 근로자 수	5.1	5.1	5.0	5.1	5.2	5.0
기타	근로자 수	15,572 (0.9%)	16,177 (3.9%)	16,067 (0.7%)	14,903 (0.9%)	15,792 (0.8%)	16,247 (0.4%)
	사업장 수	2,915 (8.6%)	3,199 (9.7%)	3,243 (10.5%)	3,306 (10.8%)	3,346 (9.5%)	3,417 (6.8%)
	평균 근로자 수	5.3	5.1	5.0	4.5	4.7	4.8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는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함.

2. 경상남도 제조업 근로자 수 현황

- 2020년 말 제조업의 업종별 근로자 수는 ‘기타 운송장비’ 6만 4,718명, ‘기계 및 장비’ 6만 3,171명, ‘금속가공제품’ 3만 4,173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3만 3,401명, ‘전기장비’ 2만 5,254명 등임.

경남 제조업 업종별 피보험자 수 동향

(단위 : 명)

	'18 4Q	'19 4Q	'20			
			1Q	2Q	3Q	4Q
제조업	334,857 (-1.5%)	335,012 (0.0%)	335,330 (0.1%)	329,150 (-2.0%)	326,413 (-2.4%)	326,844 (-2.4%)
기타운송장비	67,626 (-4.4%)	71,254 (5.4%)	70,843 (4.2%)	68,620 (-1.6%)	66,597 (-5.3%)	64,718 (-9.2%)
기계 및 장비	64,520 (0.4%)	63,888 (-1.0%)	63,570 (-1.7%)	63,364 (-2.1%)	62,547 (-2.2%)	63,171 (-1.1%)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 제외)	34,714 (0.7%)	34,560 (-0.4%)	34,566 (-1.3%)	34,392 (-1.4%)	33,887 (-2.0%)	34,173 (-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35,584 (-2.9%)	34,678 (-2.5%)	33,822 (-4.3%)	33,264 (-4.8%)	32,919 (-5.5%)	33,401 (-3.7%)
전기장비	21,750 (1.9%)	21,610 (-0.6%)	24,562 (12.8%)	24,134 (10.4%)	24,978 (16.1%)	25,254 (16.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2,857 (-5.5%)	22,518 (-1.5%)	22,122 (-3.0%)	21,189 (-6.9%)	21,182 (-6.5%)	21,238 (-5.7%)
식료품	15,609 (1.5%)	15,880 (1.7%)	15,522 (-1.2%)	15,393 (-2.0%)	15,502 (-2.0%)	15,530 (-2.2%)
1차 금속	16,589 (-3.2%)	15,649 (-5.7%)	15,232 (-5.1%)	14,288 (-10.2%)	14,160 (-10.4%)	14,129 (-9.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9,779 (2.8%)	9,805 (0.3%)	9,841 (0.0%)	9,840 (-0.4%)	9,821 (-0.4%)	10,006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9,159 (-1.2%)	9,005 (-1.7%)	9,130 (0.9%)	8,912 (-2.5%)	8,901 (-1.8%)	8,937 (-0.8%)
비금속 광물제품	7,304 (-3.1%)	6,949 (-4.9%)	6,751 (-5.1%)	6,716 (-4.7%)	6,672 (-4.7%)	6,690 (-3.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5,562 (1.1%)	5,798 (4.2%)	5,832 (3.3%)	5,692 (1.6%)	5,663 (0.3%)	5,733 (-1.1%)
섬유제품 (의복제외)	5,212 (-3.8%)	5,210 (0.0%)	5,208 (-2.3%)	5,187 (-1.5%)	5,538 (5.8%)	5,504 (5.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4,029 (1.3%)	3,956 (-1.8%)	3,994 (1.8%)	3,978 (1.5%)	3,934 (-0.2%)	3,950 (-0.2%)
기타제품	14,563 (0.7%)	14,252 (-2.1%)	14,335 (-2.1%)	14,181 (-1.8%)	14,112 (-0.9%)	14,410 (1.1%)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기타제품 제조업에는 목재 및 나무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음료, 가구, 의복,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담배,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을 포함.

- 업종별 근로자 수 증감을 보면, ‘전기장비’(+16.9%), ‘섬유제품’(+5.6%), ‘전자 부품 및 통신장비’(+2.0%), ‘기타’(+1.1%)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근로자 수 감소를 보였음.

3. 경상남도 서비스업 근로자 수 현황

- 2020년 말 경남 전체 근로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39만 9,977명임. 업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가 11만 3,985명으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 4만 6,376명, ‘전문·과학 및 기술’ 3만 5,245명, ‘부동산’ 2만 9,143명, ‘숙박 및 음식점’ 2만 7,522명, ‘교육’ 2만 8,321명, ‘운수 및 창고’ 2만 4,831명 등임.

경남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단위 : 명)

	'18 4Q	'19 4Q	'20			
			1Q	2Q	3Q	4Q
서비스업	369,550 (7.7%)	389,385 (5.4%)	385,094 (2.4%)	395,278 (3.9%)	408,448 (5.8%)	399,977 (2.7%)
보건업 및 사회복지	99,545 (6.6%)	107,672 (8.2%)	107,380 (6.4%)	111,487 (7.3%)	113,667 (7.0%)	113,985 (5.9%)
도매 및 소매	43,609 (4.8%)	45,251 (3.8%)	45,058 (3.2%)	45,707 (3.2%)	46,203 (3.6%)	46,376 (2.5%)
전문, 과학 및 기술	31,653 (1.2%)	33,067 (4.5%)	33,542 (4.1%)	34,005 (4.6%)	34,236 (4.2%)	35,245 (6.6%)
부동산	26,026 (14.2%)	28,011 (7.6%)	28,060 (6.9%)	28,459 (6.0%)	29,105 (4.3%)	29,143 (4.0%)
숙박 및 음식점	23,808 (14.5%)	27,773 (16.7%)	26,512 (7.3%)	26,797 (3.3%)	27,821 (3.2%)	27,522 (-0.9%)
교육	25,675 (11.3%)	27,281 (6.3%)	26,953 (5.6%)	28,315 (4.5%)	28,503 (7.0%)	28,321 (3.8%)
운수 및 창고	26,082 (-0.5%)	26,105 (0.1%)	25,493 (-5.2%)	25,454 (-6.2%)	25,189 (-4.4%)	24,831 (-4.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24,636 (-5.2%)	24,780 (0.6%)	24,615 (-1.4%)	24,615 (-3.8%)	24,435 (-2.8%)	24,500 (-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4,386 (47.1%)	24,380 (0.0%)	23,284 (-14.6%)	25,318 (14.0%)	33,477 (39.1%)	24,875 (2.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16,146 (8.0%)	16,551 (2.5%)	16,622 (1.2%)	16,958 (2.5%)	17,122 (3.3%)	16,738 (1.1%)
금융 및 보험	15,918 (3.9%)	15,990 (0.5%)	15,757 (-0.6%)	15,857 (-0.1%)	15,963 (-0.1%)	15,903 (-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7,231 (9.9%)	7,489 (3.6%)	6,824 (2.2%)	7,186 (-4.1%)	7,500 (-2.7%)	7,177 (-4.2%)
정보통신업	4,834 (4.5%)	5,034 (4.1%)	4,994 (3.1%)	5,120 (1.6%)	5,227 (3.5%)	5,361 (6.5%)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4. 경상남도 연령별, 성별 근로자 수 현황

- 2020년 말 경남 연령별로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20대' 9만 6,310명(-0.1%), '30대' 16만 8,340(-4.7%), '40' 21만 1,167명(-0.4%)로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50대' 19만 5,051명(+2.1%), '60대' 10만 6,917명(+9.6%)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음. 청년층 근로자 수의 감소와 중장년층 근로자 수 증가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경남 전체 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대와 50대이며, 2019년 말부터는 50대 근로자 수가 30대 근로자 수를 상회한데 이어 올해 그 격차가 더욱 커졌음. 경남 전체 근로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연령대는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30대 근로자 수 감소는 제조업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20·30대 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각각 0.1%, 4.7% 감소한 가운데, 20대·30대 제조업 근로자 수는 각각 5.8%, 6.2%로 큰 폭으로 감소했음.

반면, 60대 이상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9.6% 증가했으며, 이중 제조업 근로자 수도 7.4% 늘었음.

- 성별로 근로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수 78만 1,408명 중 남성 근로자 수는 47만 2,213명으로 전년 대비 0.8% 줄었지만, 여성 근로자 수는 30만 9,195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음.

여성 근로자 수 증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남의 남녀 근로자 성비도 2018년 말 남녀 62.1대 37.9에서 2020년 말 60.4대 39.6으로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아졌음. 이는 20·40·50대 여성 근로자 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2020년 말 기준 30대 여성 근로자의 수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음.

- 경남의 연령별·성별 근로자 수는 '50대 이상' 장년층과 '여성' 근로자 수의 증가하면서 전체의 증가를 이끌고 있음. 이는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의지 확대와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 증대, 소규모·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 등에 따른 것임. 반면, 20·30대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경남 노동시장의 급격한 고령화의 속도조절과 지역 내 청년 인적자본의 손상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경남 연령별, 성별 근로자 수 추이

(단위 : 명)

	'18 4Q	'19 4Q	'20			
			1Q	2Q	3Q	4Q
합 계	757,117	777,842	773,770	776,976	788,622	781,408
남 (제조업)	470,064 (264,328)	475,966 (265,121)	474,708 (265,680)	470,926 (260,881)	474,337 (258,038)	472,213 (258,192)
여 (제조업)	287,053 (70,529)	301,876 (69,891)	299,062 (69,650)	306,050 (68,269)	314,285 (68,375)	309,195 (68,652)
19세 이하	3,943	4,326	4,049	3,650	3,426	3,623
남 (제조업)	2,781 (2,007)	3,003 (2,165)	2,767 (2,006)	2,375 (1,671)	2,171 (1,429)	2,442 (1,743)
여 (제조업)	1,162 (203)	1,323 (188)	1,282 (171)	1,275 (157)	1,255 (134)	1,181 (144)
20~29세	96,524	96,429	95,036	95,431	96,665	96,310
남 (제조업)	53,173 (31,452)	53,234 (30,067)	52,351 (29,783)	52,057 (28,798)	52,326 (28,231)	52,438 (28,190)
여 (제조업)	43,351 (8,303)	43,195 (7,914)	42,685 (7,857)	43,374 (7,616)	44,339 (7,580)	43,872 (7,605)
30~39세	180,320	176,590	173,703	172,379	170,926	168,340
남 (제조업)	119,883 (77,565)	115,669 (74,704)	114,454 (74,274)	112,782 (72,584)	111,122 (70,761)	109,053 (69,353)
여 (제조업)	60,437 (14,120)	60,921 (14,148)	59,249 (14,087)	59,597 (13,882)	59,804 (13,868)	59,287 (13,960)
40~49세	208,974	211,922	211,431	211,241	212,391	211,167
남 (제조업)	128,352 (75,032)	129,377 (75,868)	130,165 (76,897)	129,196 (76,022)	128,916 (75,417)	128,544 (75,579)
여 (제조업)	80,622 (21,201)	82,545 (20,195)	81,266 (19,944)	82,045 (19,534)	83,475 (19,453)	82,623 (19,324)
50~59세	180,749	191,000	192,243	191,833	195,333	195,051
남 (제조업)	109,610 (60,228)	113,314 (61,864)	113,803 (62,423)	112,568 (61,343)	113,819 (61,224)	113,884 (61,346)
여 (제조업)	71,139 (21,898)	77,686 (22,151)	78,440 (22,078)	79,265 (21,643)	81,514 (21,793)	81,167 (21,954)
60세 이상	86,607	97,575	97,308	102,442	109,881	106,917
남 (제조업)	56,265 (18,044)	61,369 (20,453)	61,168 (20,297)	61,948 (20,463)	65,983 (20,976)	65,852 (21,981)
여 (제조업)	30,342 (4,804)	36,206 (5,295)	36,140 (5,513)	40,494 (5,437)	43,898 (5,547)	41,065 (5,665)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5. 경상남도 근로자 취업 및 퇴직 현황

- 2020년 4분기 취업자 수(누적)는 9만 1,306명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음. 이 중 제조업 취업자 수는 2만 8,234명으로 전년 대비 8.9% 감소했고,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5만 4,983명으로 0.6% 늘었음.
- 취업자 중 신입 취업자는 1만 259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으며, 경력 취업자는 8만 1,047명으로 2.2% 감소했음. 신입과 경력 취업자 모두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한 모습임.

업종별 취업 및 퇴직자 수

(단위 : 명)

	'18 4Q	'19 4Q	'20			
			1Q	2Q	3Q	4Q
취업	93,906 (10.0%)	92,989 (-1.0%)	117,327 (-6.9%)	87,949 (-8.5%)	102,077 (4.6%)	91,306 (-1.8%)
제조	31,380 (-11.5%)	30,984 (-1.3%)	34,741 (-2.1%)	26,935 (-20.0%)	27,502 (-9.1%)	28,234 (-8.9%)
서비스	55,314 (27.9%)	54,670 (-1.2%)	74,514 (-9.1%)	53,782 (-2.2%)	66,890 (11.6%)	54,983 (0.6%)
신입	10,764 (17.8%)	10,101 (-6.2%)	13,772 (-10.7%)	10,145 (-0.8%)	12,026 (-0.8%)	10,259 (1.6%)
제조	2,733 (-20.2%)	2,982 (9.1%)	3,541 (-6.7%)	2,515 (-3.8%)	2,412 (-13.6%)	2,927 (-1.8%)
서비스	7,518 (44.9%)	6,631 (-11.8%)	9,664 (-12.3%)	7,182 (1.5%)	9,129 (3.4%)	6,749 (1.8%)
경력	83,142 (9.1%)	82,888 (-0.3%)	103,555 (-6.3%)	77,804 (-9.4%)	90,051 (5.4%)	81,047 (-2.2%)
제조	28,647 (-10.6%)	28,002 (-2.3%)	31,200 (-1.5%)	24,420 (-21.3%)	25,090 (-8.7%)	25,307 (-9.6%)
서비스	47,796 (25.5%)	48,039 (0.5%)	64,850 (-8.6%)	46,600 (-2.7%)	57,761 (13.1%)	48,234 (0.4%)
퇴직	81,597 (-5.2%)	87,345 (7.0%)	123,205 (4.4%)	83,483 (-7.9%)	89,306 (-1.6%)	97,042 (11.1%)
제조	29,642 (-23.6%)	30,512 (2.9%)	37,176 (5.3%)	32,684 (0.4%)	30,353 (-3.7%)	28,049 (-8.1%)
서비스	45,256 (9.5%)	50,310 (11.2%)	78,055 (5.1%)	42,983 (-13.8%)	52,450 (-1.0%)	62,015 (23.3%)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2020년 4분기 퇴직자 수는 전년 대비 11.1%로 크게 증가했음. 퇴직자 수의 증가는 서비스업(+23.3%)에서 크게 이루어졌으며, 제조업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8.1% 줄었음.
- 퇴직자 수가 증가를 보인 가운데, 퇴직사유별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4만 8,364명), ‘계약만료, 공사종료’(3만 517명),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대한 퇴사’(이하 불황에 의한 퇴사)(1만 1,283명), ‘폐업, 도산’(3,431명) 순으로 나타났음.
이 중 퇴직사유별 증감을 살펴보면 ‘계약만료, 공사종료’로 인한 퇴사가 전년 대비 63.2%로 크게 늘었음. 이는 단기 근로 비중이 높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의 퇴직자(+99.3%)가 4분기에 집중된데 따른 것임. 특히, ‘불황에 의한 퇴사’(+12.6%), ‘폐업, 도산’(+21.6%)에 의한 퇴직자 수 증가가 눈에 띈다.

경남 2020년 4분기 퇴직사유별 퇴직자 수

퇴직사유	'19 4Q	'20 4Q	증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52,318	48,364	-7.6%
계약만료, 공사종료	18,711	30,517	63.1%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10,016	11,283	12.6%
폐업, 도산	2,822	3,431	21.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1,418	1,293	-8.8%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719	767	6.7%
정년	374	472	26.2%
기타	967	915	-5.4%
전체 퇴직자 수	87,345	97,042	11.1%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6.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 현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및 생산 위축으로 퇴직자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건수와 지급액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음.
4분기 경남의 실업급여 지급자수는 전년 대비 43.7% 증가한 5만 9,726명, 지급액은 57.8% 증가한 2,023억 9천만 원임.
- 특히 실업급여 지급자수와 지급액 증가는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음. 4분기 제조업 실업급여 지급자수는 전년 대비 57.6% 증가한 1만 9,731명, 지급액은 77.8% 증가한 737억 9천만 원임. 전통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비중이 높았던 서비스업의 지급자수는 39.5% 증가한 3만 3,543명, 지급액은 50.3% 증가한 1,055억 8천만 원임.
건설업의 지급자수와 지급액도 각각 29.9%, 39.8% 증가했고, 기타업종도 각각 20.2%, 33.6% 증가했음.

경남 2020년 4분기 실업급여 지급자수 및 지급액

	2019년 4분기		2020년 4분기	
	지급자수(명)	지급액(원)	지급자수(명)	지급액(원)
전 체	41,568	128,273,358,470	59,726 (43.7%)	202,390,896,350 (57.8%)
제조업	12,523	41,501,975,230	19,731 (57.6%)	73,793,793,170 (77.8%)
서비스업	24,047	70,242,783,830	33,543 (39.5%)	105,576,083,710 (50.3%)
건설업	4,601	15,138,342,780	5,975 (29.9%)	21,163,808,040 (39.8%)
기타	397	1,390,256,630	477 (20.2%)	1,857,211,430 (33.6%)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해당분기에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가 지급된 지급자수로 동일인이 해당분기에 여러번 지급 받을 경우 한명으로 계산

※ ()는 전년 동 분기 대비 증감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지급자수와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데 이어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인원과 지급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음.
- 4분기 경남의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인원은 전년대비 252.2% 증가한 6만 55명, 지급액은 197.7% 늘은 510억 9천만 원을 기록했음.
비교적 장기 일자리 성격이 짙은 제조업이 고용안정지원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제조업의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인원은 전년 대비 261.4% 증가한 4만 750명, 지급액은 191.6% 증가한 321억 6천만 원을 기록했음.
서비스업의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인원은 246.0% 증가한 1만 8,221명, 지급액은 210.2% 증가한 177억 9천만 원임.
-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지원의 급증으로 미루어보면, 경남지역 전 산업에 걸쳐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와 이에 따른 소득절벽으로부터 상당부분 바람막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경남 2020년 4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인원 및 지급액

	2019년 4분기		2020년 4분기	
	지원인원(명)	지급액(원)	지원인원(명)	지급액(원)
전체	17,052	17,164,648,080	60,055 (252.2%)	51,090,820,860 (197.7%)
제조업	11,276	11,028,919,480	40,750 (261.4%)	32,159,937,280 (191.6%)
서비스업	5,266	5,736,768,720	18,221 (246.0%)	17,794,211,980 (210.2%)
건설업	278	213,715,860	758 (173.0%)	818,054,780 (282.8%)
기타	232	185,244,020	326 (40.5%)	318,616,820 (72.0%)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해당분기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등록된 지원대상자의 합계, 동일 지원대상자가 해당 분기에 복수로 신청한 경우 지원인원은 복수로 계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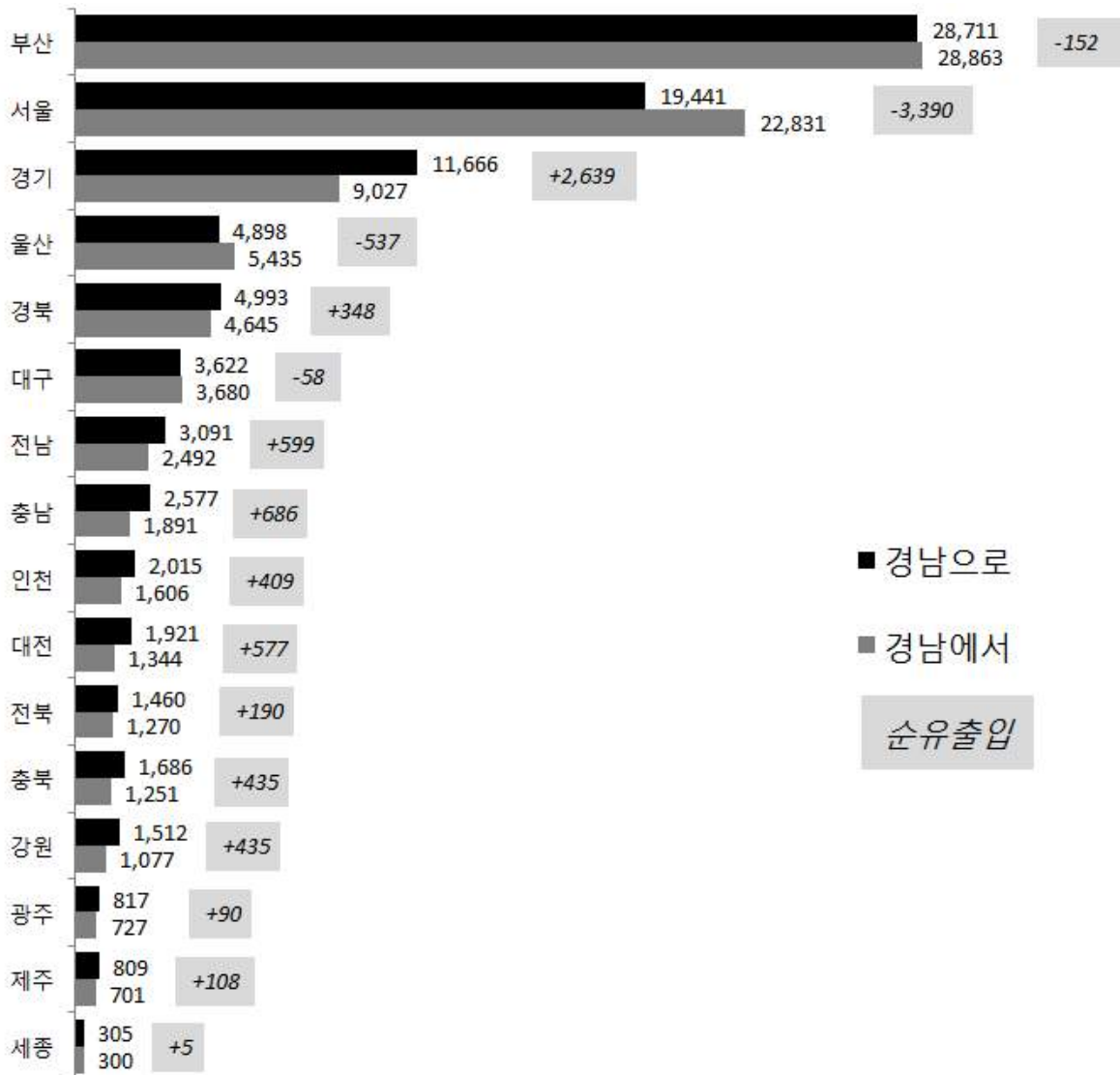
* ()는 전년 동 분기 대비 증감

7. 경상남도 근로자 경력이동 현황

- 2020년 한 해 동안 경남에서 타 지역으로 이직한 근로자 수는 35만 878명임. 이 중 경남에서 경남 내로 이직한 근로자는 26만 3,737명이며, 나머지 8만 7,141명은 타 지역으로 이동했음.
- 이 중 부산시로 2만 8,863명이 이동해 가장 많았고, 서울시 2만 2,831명, 경기도 9,027명, 울산시 5,435명, 경상북도 4,645명, 대구시 3,680명 순으로 대부분 인근 광역단체와 수도권으로 이동했음.

2020년 경남지역 근로자 타 지역 이동 현황

(단위 : 명)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반대로 경남으로 이직해온 타지역 근로자 수는 35만 2,453명임. 이 중 부산시에서 2만 8,711명이 이직해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시(1만 9,441명), 경기도(1만 1,666명), 울산광역시(4,898명) 순이었음.
- 경남에서 타 지역으로 유출된 근로자 수(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와 경남으로 유입된 근로자 수의 차이(순유출입)를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경남으로 2,639명이 순유입해 눈에 띈다. 더불어 충청남도에서 686명, 전라남도 599명, 대전시 577명, 강원도 435명, 충청북도 435명, 인천시 409명, 경상북도 348명, 전라북도 190명, 제주시 108명, 광주시 90명, 세종시 5명 등이 경남으로 순유입했음. 반면 서울시로 3,390명, 울산시 537명, 부산시 152명, 대구시 58명이 순유출했음.
- 경남으로 1,575명의 근로자 순유입이 이루어진 가운데, 특히 제조업종의 근로자 유입이 1만 5,457명으로 두드러졌음. 서울시에서 경남으로 제조업 근로자 5,379명이 순유입했고, 부산시에서 4,368명, 경기도에서 2,375명 등 울산시로 162명의 제조업 근로자 순유출을 제외하면 국내 전 시·도의 제조업 근로자 순유입이 이루어졌음.

2020년 경남지역 제조업 근로자 타 지역 이동 현황

(단위 : 명)

	경남 → 타지역	타지역 → 경남	순 유출입		경남 → 타지역	타지역 → 경남	순 유출입
부산	7,308	11,676	4,368	인천	428	802	374
서울	2,267	7,646	5,379	충북	495	768	273
경기	2,706	5,081	2,375	대전	179	605	426
울산	2,661	2,499	-162	전북	396	591	195
경북	1,872	2,083	211	강원	158	391	233
대구	992	1,373	381	광주	164	333	169
전남	808	1,357	549	제주	45	239	194
충남	823	1,279	456	세종	76	112	36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2020년 연간 전국 지역 간 경력이동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전 후	경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합계
경남	263,737	19,441	28,711	3,622	2,015	817	1,921	4,898	305	11,666	1,512	1,686	2,577	1,460	3,091	4,993	809	353,261
서울	22,831	1,280,068	33,739	18,722	60,518	12,829	24,511	9,883	4,910	335,881	21,930	21,634	27,275	15,335	15,569	18,663	10,320	1,934,618
부산	28,863	27,733	250,448	2,863	2,858	754	1,865	6,015	338	10,722	1,438	1,196	1,820	985	2,318	4,264	1,061	345,541
대구	3,680	15,215	2,571	157,423	1,314	604	1,586	1,456	229	6,699	1,007	1,120	1,353	533	561	22,444	437	218,232
인천	1,606	43,308	1,630	933	173,602	887	1,465	582	410	45,709	2,085	2,056	3,799	1,351	1,474	1,407	763	283,067
광주	727	9,036	747	339	1,292	103,882	1,262	271	272	5,164	620	564	1,122	2,656	17,127	566	359	146,006
대전	1,344	18,735	1,474	1,339	1,556	1,282	101,899	506	4,744	9,163	1,090	4,981	8,869	2,088	1,507	1,477	394	162,448
울산	5,435	7,597	6,104	1,289	882	295	601	88,457	133	4,272	769	707	1,211	498	1,010	4,787	248	124,295
세종	300	3,743	265	253	413	285	3,537	109	14,304	2,495	288	1,877	2,540	328	228	270	100	31,335
경기	9,027	267,440	8,960	5,834	47,376	5,569	9,247	4,051	2,734	894,619	14,110	16,227	26,988	7,976	9,103	9,809	3,638	1,342,708
강원	1,077	16,460	1,073	718	1,894	488	1,128	520	210	13,140	125,558	2,553	1,539	754	854	2,111	468	170,545
충북	1,251	18,231	948	809	2,106	601	4,887	610	2,207	16,063	2,433	131,123	5,006	1,167	938	2,076	308	190,764
충남	1,891	21,067	1,341	1,003	3,654	1,098	8,711	1,220	2,946	25,492	1,560	5,099	153,936	3,926	2,003	2,170	440	237,557
전북	1,270	11,244	897	617	1,585	2,548	2,146	554	483	7,766	992	1,455	4,067	146,688	3,310	1,012	336	186,970
전남	2,492	9,280	1,455	492	1,432	16,333	1,008	780	297	6,697	965	919	1,976	3,078	132,796	1,417	534	181,951
경북	4,645	14,982	3,721	22,852	2,129	610	1,838	4,610	471	10,978	1,872	2,396	2,691	1,012	1,529	189,522	476	266,334
제주	701	7,383	1,168	433	665	387	413	205	98	3,327	485	347	491	371	661	437	54,838	72,410
분류 불능	1	7			1	1	1	1	1	10			2			1	5	31
합계	350,878	1,790,970	345,252	219,541	305,292	149,270	168,026	124,728	35,092	1,409,663	178,714	195,940	247,262	190,206	194,079	267,426	75,534	6,248,073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